

#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만든다

남원·장수·구례·하동·산청·함양 6개 시·군 행안부 컨설팅 간담회 지방소멸 막고 지역발전 목표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등 논의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꾀하는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 행안부 컨설팅 간담회’가 지난 12일 남원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장수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이 일명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나섰다. 이들 6개 시·군은 최근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꾀하는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행안부 컨설팅 간담회’를 열었다. 초광역권 지역연합을 대상으로 지방시대 국정 과제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정 지원 및 지자체 간 협력기반을 마련하자는 간담회다. 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하나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남원시의원, 6개 시군 행정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리산권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지리

산권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특별자치단체 설립 방안 마련 등을 위한 6개 지자체·의회·시민군 공감대 형성 등을 논의했다. 지리산권개발조합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국환 구례군(총무과 파견) 서기관은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에 중앙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지리산권 6개시군이 공동발전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주민 주도형 ‘무장읍성 축제’ 성료

고창군, 축성 606주년 기념... 나비 606마리 퍼포먼스 등 다채

축성 606주년을 기념하는 ‘제3회 무장읍성 축제’가 지난 15일 역사와 문화의 산실인 고창군 무장읍성 일원에서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다’를 주제로 열렸다. 축제는 성황제를 시작으로, 현감부임행차, 합어식, 경로(孝) 위안잔치, 연예인 초청 신나는 예술 버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또 올해로

축성 606주년을 기념해 나비 606마리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00년 만에 연꽃 씨앗이 발아한 무장읍성 연못에선 대형 연등이 등장했다. 축제에 참여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지를 써서 띄우면서 축성 606주년의 위상에 맞게 지속적인 축제로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무장읍성 축제는 화려하고 대규모의 축제 행사는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해마다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기욱 (사)무장읍성보존회 회장은 “지역민들이 준비한 축제라서 더욱 빛났다”며 “무장읍성의 역사성과 축제의 독창성을 지역민들과 함께 살려 앞으로 더욱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장면민들이 함께 준비한 축제라서 그런지 의미는 크다”면서 “축제를 통해 무장읍성의 역사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시, 23억 투입 보행자 친화 도로 조성

호남고사거리~유창아파트 800m 구간 등 시내 5·시외 2개소

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읍시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정읍을 실현하고자 보행 친화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며 올해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15억원이 투입되는 시내권 5개소와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시외권 2개소다. 이와 함께 시민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인도에서의 불편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와 개선을 위해 3억원의 예산도 함께 확보해 놓고 있다. 시내권 사업대상은 ▲호남고사거리~유창아파

트 800m 구간 보도블럭 교체 및 자전거도로 구간 황토 포장 ▲유창 1차 아파트 앞 인도 100m 황토 포장 ▲동신초등학교 앞 인도 340m 보도블럭 교체 및 아스콘 포장과 도막 포장 ▲조선동 6통 인도 310m 보도블럭 포장 ▲천변로 연지교-죽림교 인도 1km 황토 포장 등이 있다. 시외권 사업은 ▲북면 복면우체국-정읍한우 460m구간 황토 포장 ▲임암면 대흥초등학교 통학로 180m 구간 정비 및 황토 포장 등이다. 임용덕 정읍시 건설과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정비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신재효 판소리공원’ 개소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桐里) 신재효의 업적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고창군이 건립한 ‘신재효판소리공원’이 문을 열었다.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와 임정숙 군의장 및 군의원, 군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판소리 연수·체험시설인 신재효판소리공원 개관식을 14일 열었다. 신재효판소리공원은 총 3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년 간의 공사 끝에 한옥 3개동, 연면적 614㎡ 규모로 조성됐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한옥 3개동은 판소리 교육과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고창에서는 올해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판소리 버스킹’, ‘2023년 명창초빙 판소리아카데미’, ‘판소리 체험공연’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전북교육청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도입

교원 2992명 대상 설문...정책 제언 등 TF 결과 발표

전북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보호 혁신 TF 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TF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교원 대상 설문조사,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운영 결과를 내놨다. 도내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가정교육 약화와 학생권리 확대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F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

호권·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원스톱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F가 마련한 제언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밥알이 앉았나... 이팝나무 수려한 자태



‘쌀밭처럼 새하얀 꽃이 무성하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천연기념물 제183호 고창군 대신면 중산리 이팝나무가 올해도 화려한 꽃을 피웠다. 이팝나무 꽃은 멀리서 보면 새하얀 눈이 내려앉은 모습이며, 가느다랗게 넷으로 갈라지는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돛이 잘 든 밥알 같이 생겼다해서 이팝나무라 했는데, 이밥이 이팝으로 변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고창군 대신면 중산리 이팝나무는 높이 10.5m, 둘레 2.68m로 이팝나무 중에서도 매우 크고 오래됐다. <고창군 제공>

## 남원시의회, 충청도 시장 방문 벤치마킹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 조사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강인식)가 지난 15일 충청도 양주(경주시)와 충남 예산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강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태수·오동환·이미선·한명숙·이숙자 의원 등은 이날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양 구경시장과 예산시장 방문해 성공사례를 조사했다. ‘관광형 시장’의 대표사례인 단양구경시장에서

는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도록 하는 전략과 유인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시장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 등 관광객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승인 백종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예산군의 협력으로 화제를 모은 예산시장은 침체의 위기에 있던 시장이 ‘백종원’ 효과를 누리며 일일 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